

名前:

'한국의 종리의 인사 청운회' 이것은 모  
 늘 이후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기사다. 현  
 장에 왔듯이 바로바로 생중계되는 인터  
 넷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  
 넷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으로 인류의 생활을 비  
 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첫째, 신문은 여러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질의, 선  
 별된 정보가 실린다. 오히려 인터넷의  
 정보는 너무 많고 또한 사람들의 이용  
 을 - 즐기 위한 가십성의 기사가 많다. 우  
 리가 이런 해 정확하고 건전한 기사를  
 접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또한 자신  
 의 흥미勃勃만 집중해서 찾아보므로 제  
 보의 편식도 심해질 수 있다.  
 둘째, 전자매체로 받는 정보이므로 문  
 제가 발생한다. 모니터를 보므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도 떨어진다. 또  
 한 저장된 정보를 다시 열람할 때 마다  
 컴퓨터를 부팅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이 지루한 시  
 랑들에게 인터넷으로 받는 정보는 1회  
 씩으로 그 채 수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집하는 것에 즐거움  
 을 느끼는 습성이 있다. 좋아하는 연예  
 인, 음악장르에 관한 잡지와 신문은 수  
 록 많으며, 이것들이 선반 위에 쌓이는데  
 그 바 아날로그적, 정적인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로 나는 신문과 잡  
 지 등의 인쇄매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변화가 빠른 현대인에게  
 인터넷 신문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양쪽 매체를 적절히 이용하여  
 유행의 선도자가 되는 동시에 아날로그  
 그적에 즐거움을 느끼고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